

#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 소설의 모티브

—<가타시로(形代)>를 중심으로—\*

임종석\*\*

---

### 目次

---

서론

I. 『중이학(千羽鶴)』에 있어서의 <가타시로(形代)>

II. 『산의 소리(山の音)』에 있어서의 <가타시로(形代)>

결론

---

### 서론

소설가들은 자기의 작품을 창출하는 데에 있어 갖가지의 모티브를 사용하여 주제를 조형한다.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도 그렇다. 그는 자기의 작품 세계에 마계(魔界)·가타시로(形代)<sup>1)</sup>·헛수고(徒勞)·사랑(愛)·생(生)·사(死)·윤회전생(輪回轉生)·저편(向う側)·꿈(夢)·무(無) 등의 많은 모티브를 써(使)서 일본문학사에 길이 남을 우수한 소설들을 써(書) 남겼는데, 이들 모티브들 가운데 특히 중요하고 난해한 것은 <마계(魔界)>와

---

\* 이 논문은 2005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근대문학전공

1) 『広辞苑(第三版)』(岩波書店, 1983·12)에는 「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신령의 대신으로서 안치해 둔 것. ② 음양사가 목욕재계·불제(祓除) 등에 쓰는 인형. ③ 진짜를 닮은 것. 대신(代身). ④ 천하에 맡들어 모시는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③의 의미로 씀.

<가타시로(形代)>라고 할 수 있다.

가와바타의 소설은 난해하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 원인은 고도의 상징성이 작품의 행간 행간에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징성은 모티브에 대한 이해 없이는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언하면 난해하다고들 하는 가와바타의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징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이기는 하지만 작품에 쓰인 모티브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 모티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하고 난해한 <마계>와 <가타시로>의 이해는 가와바타 문학세계를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계에 대해서는 졸론 「가와바타 야스나리 소설의 모티브 —魔界를 중심으로—」<sup>2)</sup>에서 상술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가타시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가타시로>가 모티브로서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가와바타의 작품은 『종이학(千羽鶴)』과 『산의 소리(山の音)』인데, 이 두 작품은 거의 동시에 집필되었다. 『종이학』은 1949년 5월에 기필하여 1951년 10월에 각필하였고, 『산의 소리』는 1949년 9월에서 1954년 4월 사이에 집필되었다. 가와바타는 집필 기간이 많이 겹친 이 때 『종이학』과 『산의 소리』의 두 작품에 <가타시로>를 모티브로 써서 자신의 소설을 한층 더 문학적 향기 짙은 작품으로 완성해낸 것이다.

가와바타 소설에 <가타시로>가 모티브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산의 소리』를 논하며 야마모토 겐키치(山本健吉)·다케니시 히로코(竹西寛子)·우에자카 노부오(上坂信男)·하세가와 이즈미(長谷川泉) 등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었고, 야마다 요시로(山田吉郎)에 의해 구체화되었는데, 야마다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겐지모노가타리』 — 『산의 소리』에 있어서의 『가타시로』를 중심으로—」<sup>3)</sup>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 있어서는 히카루 겐지(光源氏)가 후지쓰보(藤壺)의 모습을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 등에게 찾아가는 구성이나, 가오루기미(薰君)가 우키부네(浮舟)를 오키미(大君)의 「가타시로」로서 간주하는 구성으로 읽을 수 있는데, 『산의 소리』에 있어서는 주인공 신고가 떠느리 기쿠코(菊子)를, 세상을 뜬 야스코(保子)의 언니의 「가타시로」로서 간주하는 구성을

2) 임종석 「가와바타 야스나리 소설의 모티브 —魔界를 중심으로—」(日本文学会, 日本文學報 第24輯, 2005·2), p229~p246

3) 山田吉郎 「川端康成と『源氏物語』—『山の音』における『形代』を中心として—」<『文芸研究』第九十一集(日本文芸研究会, 1971·3)> 所収、p37

찾아볼 수 있다.

소설에 있어서의 <가타시로>라는 모티브는 일본고전의 최정상에 위치한 1천년 전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로부터 시작되어 근대의 『산의 소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와바타의 소설에서 이 <가타시로>의 모티브가 적극적으로 쓰인 것은 『산의 소리』 뿐이 아니라, 『종이학』에도 『산의 소리』에 못지않게 작품세계 전면에 걸쳐 쓰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작품이 집필된 순서에 따라, 또 논문 구성상에 있어서의 편의에 따라 『종이학』에 대하여 먼저 고찰하고, 이어서 『산의 소리』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가타시로>라고 하는 모티브가 가와바타 소설에 있어서 의미하는 것과 또 이것이 작품세계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 I. 『종이학(千羽鶴)』에 있어서의 <가타시로(形代)>

『종이학(千羽鶴)』과 『산의 소리(山の音)』는 『눈 고장(雪国)』과 함께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종이학(千羽鶴)』은 근친상간적 정사로 얼룩진 소설이다. 주인공 기쿠지(菊治)가 아버지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우리식으로라면 작은어머니라고 불렸을 터인 여자와 정교(情交)를 했고, 또 그 여자의 딸과 정교를 하는 이중의 근친상간적 정교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당연히 독자들에게 구토를 자아내게 할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구토는커녕 읽는 자들로 하여금 아름다움까지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여기에 이 작품의 특색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악하기 그지없는 근친상간적 정사로 진 이 얼룩이 오히려 아련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장미꽃의 무늬로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기쿠지가 여덟이나 아홉 살 때쯤이었을까. 아버지를 따라 치카코(ちか子)의 집에 가니, 치카코는 거실에서 가슴을 드러내놓고 반점의 털을 조그마한 가위로 자르고 있었다. 반점은 왼쪽 유방으로 반에 걸쳐 명치 쪽으로 퍼져있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이다. 그 검붉은 반점에 털이 나있는 모양으로 치카코는 그

털을 가위로 자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종이학』의 모두의 일절이다. 치카코의 반점은 마기(魔氣)를 분출하는 근원으로, 이 마기에 감염된 자들은 마성(魔性)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마성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세계는 마계(魔界)가 된다. 따라서 『종이학』의 세계는 마계라 할 수 있다. 치카코 가슴의 반점에서 분출된 마기는 가장 먼저 치카코 자신을 감염시켜 마성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기쿠지를 그렇게 했고, 등장인물 대부분을 그렇게 한 것이다.

마성은 인간세상의 보편적 윤리나 도덕을 초월한다. 그러기에 기쿠지, 그리고 그의 정사의 상대 여자들은 근친상간적 관계에 빠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불륜을 합리화하는 데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름답게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다. 마성이 근친상간적 불륜을 아름다움으로까지 승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구토를 자아내게 하는 근친상간적 정사를 아름다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가타시로>라고 하는 모티브이다. 그런데 기쿠지가 이미 세상을 뜬 아버지의 여자 오타(太田)부인과 맺어진 것은 역시 아버지의 여자였던 치카코의 다회(茶會)에 간 것이 실마리가 된다.

「엔카쿠 사(円覚寺) 안쪽 다실에서 구리모토 치카코의 다회가 있을 때마다 기쿠지는 안내를 받았지만, 「세상을 뜬 아버지에 대한 의리의 안내장이라고」 생각하여 「한번도 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의 안내장에는 제자의 한 사람인 아가씨를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여 써놓」았기에 왔다가 그 자리에서 그는 뜻밖에도 오타부인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산문(山門)의 그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오타부인과 만나 아버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엔카쿠 사와는 반대쪽 언덕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 두 사람은 저녁식사를」 한 것이다. 듣지 않는다고 안 될 것도 아니고 듣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지만 부인이 너무나도 그리운 듯, 호소하듯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므로 기쿠지는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부인에게 「호의」까지 느끼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부드러운 감정에 감싸여있는 것 같은 느낌」과 동시에 이런 여자의 사랑을 받은 「아버지가 행복」했었다고 까지 느끼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맺어진 것이다.

오타부인은 적어도 마흔다섯 살 전후일 터로 기쿠지보다 스무 살 가까이

연상일 것이지만, 연상이라고 하는 느낌을 기쿠지에게 잊게 했다. 기쿠지는 연하의 여자를 안은 것 같았다.

부인의 경험에 의한 기쁨을 기쿠지도 함께 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경험이 열은 총각의 주눅은 어디에서도 느끼지 않았다.

기쿠지는 처음으로 여자를 안 것처럼 생각되고, 또 남자를 안 것처럼 생각되었다. 자신의 남자가 눈을 뜬 것에 놀랐다. 여자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수동적이어서, 따라오면서 끌여가는 수동적이어서 따스한 향기에 흐느껴 우는 것 같은 수동적이라고는, 기쿠지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

총각인 기쿠지는 그 뒤에 뭔가 꺼림칙함을 느끼는 일이 많지만, 가장 꺼림해야 할 터인 지금 달콤한 평온함이 있을 뿐이었다.

이럴 때 기쿠지는 결국 무뚝뚝하게 떨어지고 싶어지지만, 따스하게 달라붙어 멍하니 있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았다. 여자의 물결이 이렇게 뒤를 따라오는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 그 물결에 살결을 쉬며 기쿠지는 정복자가 즐면서 노예에게 발을 씻기고 있는 것 같은 만족까지 느꼈다.

두 사람의 정교 뒤, 기쿠지의 느낌이다. 정교로서 최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이와 같은 최고의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경험이 적은 기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 많은 오타부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많으면 여자는 모두가 이처럼 최고의 정교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오타부인이 정교를 최고의 것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여자로서의 「명품」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오타부인」은 그야말로 「여자의 최고 명품」이었고, 사랑에 있어서는 귀재였던 것이다. 그녀는 「인간이 아닌 여자」요, 「인간 이전의 여자」요, 「인간 최후의 여자」였던 것이다. 그녀는 정교를 통하여 「별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자였고, 일단 그리되면 「기쿠지는 순순히」 그 「별세계로 따라 들어갔」던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종이학』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오타부인의 사랑의 천재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종이학』은 오타부인을 주요 등장인물로 해서 성립된 소설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였다. 치카코의 말처럼 「좀 모자란」지도 모른다.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 기쿠지를 만나자 그리움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너무 「마음씨가 고와 살아있을 수 없」으면서도 사랑 앞에서는 남자를 「무엇인가 따스하게 방심시

키는 것이 부인에게는 있다. 결국 오타부인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자인 것이다.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일. 그래서 그녀가 찾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타시로>였다. 그녀는 기쿠지에게서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봤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그녀에게 있어서의 기쿠지는 자기 연인의 <가타시로>였던 것이다. 그러니만큼 그녀가 안긴 것은 기쿠지에게가 아니라 기쿠지의 아버지, 즉 자기의 연인에게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는 기쿠지를 그의 아버지로 보고 여자의 「명품」으로서 사랑의 천재성을 발휘하여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정교 후에도 기쿠지조차 「도덕의 그림자 같은 것」은 조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작가 가와바타는 오타부인에게 있어서의 기쿠지가 자기의 연인, 즉 기쿠지의 아버지의 <가타시로>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몇 번인지 모르게 반복하고 있다. 「부인은 별세계에 들어가고 나면 죽은 남편, 기쿠지의 아버지, 기쿠지라고 하는 것 같은 구별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기에 기쿠지는 오타부인에게 「당신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하는 것이다. 앞에 인용한 장면의 정교 자리에서도 기쿠지는 그녀에게 「당신은 아버지를 생각했을 뿐이었지요?」라고 말함으로써, 그녀에게 있어서의 자신은 아버지의 <가타시로>일뿐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오타부인이 기쿠지에게 안기는 것은 그를 자기의 연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연인인 기쿠지의 아버지에게 처음 안긴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방금 인용한 표현에서도 보듯이 그녀에게 있어서의 기쿠지의 아버지 또한 자기의 「죽은 남편」의 <가타시로>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기쿠지의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실에 자기의 「세상을 뜬 남편의 사진을 요란스럽게 장식한 채」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오타부인이 아무리 사랑의 귀재라 해도 항상 「별세계」에서만 살 수는 없는 일이다. 마기에 감염이 되어 마계의 사람, 마성의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인간사회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별세계」로부터 한 발짝만 물러서면 자신의 추악한 모습에 몸부림을 칠 수 밖에 없었다.

지극히 만족스런 정교 후, 유키코라고 하는 「아가씨를 나에게 보이고 싶어서 구리모토는 나를 부른 것이요」라고 하는 기쿠지의 말을 듣고 오타부인은 「별세계」로부터 현실로 돌아온다. 그래서 「어머」라고 놀라며 「그랬나요? 선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그랬군요」라 했고 「부인의 눈에서 배개로 눈물줄기가 흘러내리」는가 하면 「어깨가 떨렸」던 것이다.

그래도 오타부인에게 있어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인 듯, 처음 정교의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의 「별세계」를 연출한다.

기쿠지는 이빨을 보이며 다가갔다.

부인의 아가의 물결이 되돌아왔다.

기쿠지는 안심하고 잠들었다.

두 번째의 정교에 대한 표현은 이것뿐이다. 그러나 이 두 번째의 것도 처음의 그것과 별로 다름이 없는 완벽한 정교였다는 것을 짐작하기에 넉넉한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뜬 「기쿠지의 머릿속」은 「씻은 것 같았」던 것이다. 기쿠지가 오타부인을 아버지의 여자였던 사람으로 안았다고 한다면 그리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기가 아버지의 대역,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타시로>였기에 가능한 현상이었던 것이다.

엔카쿠 사 근처의 여관에서 헤어진 뒤 두 사람은 한동안 만나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오타부인은 정을 통해서는 안 될 사람과 통했다고 하는 죄의식 때문에 몸부림친다. 몸이 야위어 「가벼워지」고, 「비가 오는 날은 이제 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기쿠지를 향한 그리움으로, 아니 기쿠지 자신이 아닌 그의 아버지의 <가타시로>로서의 기쿠지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운다. 만나러 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자신의 자제력 때문이 아니라 딸 후미코(文子)가 「말렸」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기쿠지를 만나겠다고 「아무리해도 나가려고 하는」 그녀를 후미코가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은 일까지 있다. 딸이 어머니 같고 어머니가 행실이 바르지 않은 딸 같기도 한 장면이다.

그러나 어느 비가 내리는 날 몸이 많이 약해진 어머니가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후미코가 방심한 사이에 오타부인은 결국 딸의 눈을 피해 기쿠지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간다. 그리고 기쿠지를 만나 한 말이 「미안해요. 만나 뵙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이다. 그런 뒤 두 사람은 세 번째의 정교를 한다. 정교 후 기쿠지는 또 「부인은 아버지와 나의 구별이

되나요?」라고 말한다. 부인에게 있어서의 자기는 아버지의 <가타시로> 라는 뜻이다. 오타부인과 기쿠지의 두 사람이 「별세계」에 있는 한 기쿠지의 「아버지와 기쿠지의 구별 같은 것」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부인은 「별세계」로부터 나와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죄의식 때문에 괴로움으로 몸부림친다.

「용서해줘요. 아앗, 무서워.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가요..」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아, 죽고 싶다. 죽고 싶어요. 지금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말이요, 기쿠지 산, 내 목을 조르려 하지 않았어요? 어째서 즐라주지 않았어요?」

이처럼 괴로워한 오타부인은 집에 돌아와 그날 밤이 새기 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그런데 문제는 오타부인의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기 전 그녀가 기쿠지에게 자기는 「지쳐 죽」을 것이라며, 죽은 뒤 자기 딸 「후미코」를 「기쿠지 산한테 부탁」한다고 한 말은 앞으로 무엇인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게 한다.

그렇다면 총각에게 처녀를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러기에 이 부탁에 기쿠지는 「따님이 당신 같다면야」라고 대답한 것이다. 정교 뒤에 「당신 같다」고 한 것이니 이 말의 뜻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쿠지는 그 자신이 한 말로 봐서 오타부인의 부탁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미코 또한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는 극히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아가씨이니 어머니의 남자였던 사람의 여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후미코는 기쿠지와 정교를 하고 말았으니 세상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이는 후미코와 기쿠지의 두 사람이 마성에 감염되었다는 것과, 기쿠지에게 있어 후미코가 자기 어머니 오타부인의 <가타시로>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사실 후미코가 어머니 오타부인의 <가타시로>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하리만큼 빈출한다. 후미코가 어머니의 <가타시로>가 됨은 그녀가 어머니를 꼭 닮았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그녀의 「둥그스름한 얼굴은 어머니를 닮」았기에, 그녀가 갑작스럽게 기쿠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기쿠지가 후미코 「아가씨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던 것이다. 그리고 오타부인이 세상을 뜨고 칠 일재(齋)에 기쿠지가 갔을 때에도, 「현관에서 후미코가 맞을 때부터 기쿠지가 부드러운 느낌을 받은 것도 후미코의 상냥한 등근 얼굴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후미코가 어머니를 꼭 닮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보고 기쿠지에게 「저와 너무도 닮은 사진을 내어놓은 것은 뭐랄까 부끄러워서」라고 말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미코는 「목소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어머니를 닮았」고, 「사라져 끝날 것 같은 목소리」도 「어머니를 닮았다」. 「천둥이 치면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시시한 것까지 어머니를 닮」았는가 하면, 그녀는 「어머니의 성격을 이어받아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저항하는 일이 없는, 이상한 무구(無垢)함을 닮은 아가씨」이기도 하다.

후미코가 휘청거리며 넘어져오는 기색에 몸이 잔뜩 굳어진 기쿠지는 후미코의 의외로 나긋나긋함에 앓 하고 소리를 칠 뻔했다. 격렬하게 여자를 느꼈다. 후미코의 어머니 오타부인을 느꼈다.

어느 순간에 후미코는 몸을 피한 것일까. 어디에서 힘이 빠진 것일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나긋나긋함이었다. 여자의 본능적 비술(秘術)인 것 같았다. 기쿠코는 후미코의 무게가 강하게 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미코는 따스한 내음처럼 다가왔을 뿐이었다.

내음이 강하게 왔다. 여름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 여자의 체취는 진해져 있었다. 기쿠지는 후미코의 내음을 느끼고 역시 오타부인의 내음을 느꼈다. 오타부인의 포용의 내음이었다.

후미코가 기쿠지의 집에 왔을 때 기쿠지로부터 자기가 우표를 잊고 붙이지 않은 채 보낸 편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되면 후미코가 어머니 오타부인의 <가타시로>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게 된다. 여기에서의 후미코의 「나긋나긋」함은 오타부인과 기쿠지의 첫 정교장면에서의 오타부인의 「나긋나긋」함과 일치한다. 그러기에 기쿠지는 「앓」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쿠지는 후미코에게서 「여자를 느」끼자 거기에서 「후미코의 어머니 오타부인을 느」낀 것이다. 후미코의 「여자의 본능적 비술(秘術)」에서는 이것이 「여자의 최고 명품」으로서의 오타부인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쿠지는 후미코의 체취에서, 「

후미코의 내음을 느끼고 역시 오타부인의 내음을 느꼈는데, 그 내음은 「오타부인의 포옹의 내음이었」다 하니 가와바타의 작의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독자들은 이 장면에서 후미코와 기쿠지 사이에 정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은 기쿠지와 오타부인의 전철을 밟고 만다. 「후미코의 저항은 없었다.」 이것이 후미코와 기쿠지의 정교 장면에 대한 표현 전체이다. 「후미코의 순결의 아픔이 기쿠지를 구해낸 것일까./후미코의 저항은 없고, 순결 바로 그것의 저항이 있을 뿐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기쿠지가 회상한 것에 의한 것이다.

이 단 한번의 정교에 의해 「후미코는 기쿠지에게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이 되」었고, 「결정적인 운명이 되었」던 것인데, 이 정교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을 작품세계는 「어머니의 몸이 미묘하게 딸의 몸으로 옮겨진 거기에 기쿠지가 괴이한 꿈을 끌어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다. 꽤 복잡한 표현이지만, 좀더 단순화해서 말하면 어머니의 몸이 딸의 몸으로 옮겨졌기에 두 사람은 정교를 한 것이라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서 딸은 어머니의 <가타시로>이므로 정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종이학』은 한 미망인이 지금은 죽고 이 세상에 없는 정부(情夫)의 아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정부의 아들은 또 미망인의 딸과 불륜 속에 빠진다고 하는 패륜의 세계를 그린 소설이다. 이 이중의 근친상간적인 정교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토를 자아내게 하리만큼 악취를 풍겨야 할 터이지만, 실제로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오히려 이들의 사랑에서 아름다움까지 느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작품세계에 무엇인가의 장치가 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마계>라고 하는 모티브와 <가타시로>라고 하는 모티브가 기묘하게 작용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이학』의 세계에 있어서의 <마계>와 <가타시로>라고 하는 모티브는 구토를 자아내게 할 불륜의 정교까지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시키도록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Ⅱ. 『산의 소리(山の音)』에 있어서의 <가타시로(形代)>

『산의 소리(山の音)』는 62세의 신고(信吾)라고 하는 노인의 이야기이다.

「벌레가 우」는 어느 여름날밤 신고는 「나뭇잎에서 나뭇잎으로 저녁이슬이 떨어지는 소리도 듣는다」. 「그리고 문득 신고는 산의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를 「바람소리인가, 바다소리인가, 귀울음(耳鳴)인가 하고 신고는 냉정하게 생각했지만 그런 소리 같은 것은 듣지 못」한 것 같다. 「분명히 산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소리가 그친 뒤 신고는 비로소 공포심을 느꼈다. 죽을 때를 고지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한기를 느꼈다」.

이 소설에 『산의 소리』라는 제목이 붙여진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이 소설에 있어서 <산의 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주인공 신고가 이 <산의 소리>를 듣고 죽을 때를 고지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이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를 들을 리도 없겠지만, 만약 들었다 해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음직한 일을 노인이기에 이토록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포심에 떨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산의 소리』는 노인소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라고 하는 한 노인의 특수한 정신세계를 그린 소설이다. 그러니만큼 『산의 소리』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인공 신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고는 「5일 전에」 그만둔 식모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기도 하는가 하면, 매일처럼 매던 「넥타이」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매는 방법을 잊어 땀 수 없게 되기도 하는 심한 건망증에 「새까만 공포와 절망」을 느낀다. 「끔직한 회중시계」를 보는 데도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차를 마시다가 찻잔으로 잘못 알고 「재떨이」에 차를 따르기도 한다. 「환갑인 작년」에는 「피를 조금 토」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문득 피를 토할 것 같은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조그마한 일에도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며 「심장이 발작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되기도 한다. 신고는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가는 나이의 노인인 것이다.

태평양전쟁이라는 격류의 강을 죽지 않고 건너와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전쟁터에서 돌아온 외아들 슈이치(修一)는 「결혼하여 2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여자를 두고 있」고, 외딸로 슈이치의 누나인 후사코(房子)는 결혼생활이 평탄치 않아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와있다.

신고는 자신이, 「나 결국 후지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늙었도다」라고 중얼거린 데에서 보듯이, 「후지 산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일본 삼경도 보지 못하고 일생을 끝마친 사람도 예상외로 많은 거야」라고 친구에게 말한 데

에서 보듯이, 지나버린 인생을 덧없어 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가 「분명하게 손을 내밀어 아내의 몸에 대는 것은 이제 코고는 소리를 멈추게 할 때 정도」로 그는 성(性)도 시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신고의 아들 슈이치가 장가를 들어 며느리 기쿠코(菊子)가 들어왔고, 그 「기쿠코가 신고에게 있어서는 우울한 가정의 창」이 되어준다.

그런데 신고는 소년시절에 아내 「야스코의 언니를 무척 동경하고 있었다」. 젊어서 세상을 뜬 야스코의 언니(여기에서부터는 <언니>라고 표기함)는 신고가 환갑을 넘겨 노인이 된 지금까지 죽기 전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의 가슴 속에 남아 「동경」의 불씨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작가는 <언니>를 신고에게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요절시킨 것일 게다. 이는 어느 노부부가 자살을 하기 전에 남긴 유서에서 「인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동안에 사라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 말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신고는 딸 후사코에게 <언니>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별써 40년이나 전의 이야기인데 말이야, 시골의 외할아버지는 분재의 도락가였지. 네 어머니의 아버지시지. 그러나 네 어머니는 저렇게 숨씨가 좋은 편이 아니고 마음도 꼼꼼하지 못하니까, 네 어머니의 언니인 너희 이모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 분재를 돌보도록 했었다. 네 어머니와는 자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인이었지. 분재의 받침대에 눈이 쌓이는 아침이면 수수한 단발머리의 네 이모가 빨간 옷을 입고 분재의 눈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떠오르는 것 같다. 선명하고 예쁘게 말이지. 신슈(信州)는 추우니까 입김이 희었어.

신고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양복을 입었을 때 넥타이를 매준 것은 야스코의 아름다운 언니였다」. 이러한 <언니>이기에 신고에게 언제까지나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니만큼 4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신고에게 <언니>는 선명하게 눈에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다. 신고에게 있어서의 <언니>는 언제까지나 지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연인이었던 까닭이다.

신고가 들은 <산의 소리>도 실은 <언니>가 「세상을 뜨기 전에 산이 우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 신고가 소년시절에 동경했던 그 <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세상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신고가 들은 <산의 소리>에는 그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회춘하고

싶다고 하는 바람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고는 며느리 기쿠코에게서 <언니>의 모습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고에게 있어서 기쿠코는 <언니>의 <가타시로>가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기쿠코는 신고에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여자이기도 한 것이 된다. 그러나 모럴리스트인 신고이고 보면 이는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작품세계를 훑어봐도 신고와 기쿠코는 사이가 좋은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좀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사이좋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임과 동시에 남자와 여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산의 소리』의 난해성과 짙은 문학적 향기가 있는 것이다.

황당한 이야기가 황당하지 않은 이야기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신고와 기쿠코의 사이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사이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에 대해 상술하였다. 이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고의 정신세계를 정리해보면, 늙음에 대한 탄식과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각 끝의 현실 도피적 방법으로 회춘을 해보려고 하는 바람을 가지는 일로부터 시작된 세계, 이것이 그의 정신세계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산의 소리』의 세계를 푸는 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 도피적이라 할지라도 회춘을 이루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망상 속에서나 청춘을 즐기는 그런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신고는 자타가 공인할만한 모럴리스트이므로 이 또한 가능치 않다. 회춘하고자 하는 바람은 있는데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하는 의식이 작용하여 이를 막고 있다는 것이 신고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고의 회춘하고자 하는 바람은 그의 의식 밑으로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쓰르타 긴야(鶴田欣也)는 신고를 의식 위의 신고와 의식 밑의 신고의, 두 사람의 신고로 나누어서 생각한다.<sup>4)</sup> 필자도 동의한다. 의식 밑에 가라앉아 있는 신고와 의식 위로 떠올라 있는 신고의 두 사람의 신고가 있는 것이다. 의식 밑에 가라앉는다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므로 꿈이라든가 최면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도 의식을 할 수가 없다. 의식 밑의 신고도 마찬가지이다. 그러기에 작가 가와바타는 작품세계에 신고의 꿈

4) 鶴田欣也 「まぼろしからうつつへー『山の音』の錯覚と発見」<平川祐弘・鶴田欣也『川端康成『山の音』研究』(明治書院, 1985・9)> 소수, p164~165

을 9회나 설정해놓은 것이다.

신고와 기쿠코는 의식 위에서는 사이가 좋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이지만, 의식 밑으로 내려가면 남자와 여자가 되는데, 이는 무의식의 상태에서이므로 이 사실을 두 사람 다 당연히 의식하지 못한다. 의식하지 못한 이 사실은 신고의 꿈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회춘하고자 하는 신고의 바람은 그의 몸에도 나타나 젓이 「열네댓 살의 여자아이처럼」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에 그는 아내에게, 「젓이 가려워. 젓꼭지가 딱딱해져서 가려워」라고 말할 정도이다. 사춘기의 소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가 젊음을 얼마나 동경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고가 소년시절에 동경했던 <언니>의 모습을 며느리 기쿠코에게서 봤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신고는 「온천여관에 젊은 여자를 데리고 가 거기에서 돌연사」한 친구 미즈타(水田)의 아내로부터 노멘(能面) 두 개를 어쩔 수 없이 산다. 하나는 갓시키(囃食)로 미청년의 가면이고, 또 하나는 지도(慈童)로 「영원한 소년」의 가면이다. 신고는 처음 갓시키에 관심을 보인다. 갓시키를 보고 「누군가를 닮았군. 사실적이구먼」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는 그 누군가가 자기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는 다시 지도로 관심을 옮긴다. 지도는 「영원한 소년」이지만 「소녀에 가깝다」.

바로 위에서 눈을 가까이해가자 소녀처럼 매끄러운 살결이 신고의 노안에 아련히 부드러워짐에 따라 인간피부의 파스함을 가지고 가면은 살아서 미소 지었다.

「아얏」하고 신고는 숨을 삼켰다. 서너 치의 가까이로 얼굴을 가까이 하고 살아있는 여자가 미소 짓고 있다. 아름답고 정결한 미소이다.

눈과 입이 실제로 살아있다. 뚫린 눈의 구멍에 검은 눈동자가 들어있었다. 자줏빛 입술이 사랑스럽게 젖어보였다. 신고는 숨을 죽이고 코가 닿으려하자 시원스런 눈동자가 아래에서 떠올라 아랫입술이 부풀었다. 신고는 위태롭게 입을 맞추려했다. 깊은 숨을 몰아쉬고 얼굴을 떼었다.

그 뒤 바로 신고는 「하늘의 사련(邪恋)과도 같은 두근거림을 느낀다. 지도는 기쿠지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사련」인 것이다. 지도가 기쿠코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지도의 가면을 얼굴에 쓴 것으로 증명

이 된다.

요염한 소년의 가면을 쓴 얼굴을 기쿠코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신고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기쿠코는 얼굴이 작으므로 턱 끝도 거의 가면으로 가려있었는데, 그 보일락 말락 한 턱으로부터 목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은 두 줄기가 되고 세 줄기가 되어 계속 흘러내렸다.

「얘야」라고 신고가 불렀다.

「넌 슈이치와 헤어지면 다도 선생이라도 될까 하고 오늘 친구를 만나 생각한 거지?」

지도의 기쿠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헤어지더라도 아버님 곁에 있어 차라도 가르치며 살아가고 싶어요」라고 가면 뒤에서 분명하게 말했다.

양하고 사토코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당에서 테루가 요란스럽게 짓었다.

「지도의 기쿠코는 고개를 끄덕였다」에서 「지도의 기쿠코」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도를 쓴 기쿠코」라든가 「지도에 가린 기쿠코」라든가 「지도 뒤의 기쿠코」 등의 다른 표현이 얼마든지 있는데, 또 이들 표현이 어법상 바르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한 데에서 작가의 작의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도의 기쿠코」에서 조사 「의」 앞의 「지도」와 뒤의 「기쿠코」는 동일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본어의 조사 「の(의)」 앞의 것과 뒤의 것은 동격으로 쓰이는 일이 많은데, 여기에는 설령 동격으로 쓰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남편과 헤어지면 시아버지는 이미 남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옆에 있으며 살아가겠다니 무슨 뜻인가. 기쿠코의 말은 다름 아닌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진행되면 심한 불륜이 되고 만다. 그러기에 작가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사토코를 울게 하고 테루가 짓게 한 것이다.

작품세계에 이와 비슷한 장면은 또 있다. 「너는 슈이치와 헤어질 생각이 있는 거니?」라고 묻는 신고의 말에, 「만약 헤어진다 해도 아버님께 어떤 도움이라도 받았어요」라고 대답한다. 「그건 너의 불행이야」는 이에 이어지는 신고의 말이고,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일에 불행은 없어요」는 기쿠코

의 말이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이미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고는 기쿠코의 말을 「정열의 표현」으로 이해했고, 또 거기에서 「위험을 느낀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어진다.

「너는 자유라고 슈이치는 너에게 말하지 않던?」

「아니요」라고 기쿠코는 의아하다는 듯이 눈을 들고,

「자유라니요……?」

「응, 나도 말이다, 제 마누라가 자유라니 무슨 소리냐 라고 반문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는 나로부터도 좀더 자유로워져라, 나도 너를 좀더 자유롭게 해줘라, 라고 하는 뜻도 있는지 모른다.」

「나라니 아버지님 말씀인가요?」

「그래. 너는 자유라고 내가 너한테 말해주라고 슈이치가 그러더라.」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정말로 신고는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늘에서 난 소리란 실은 「비둘기가 대여섯 마리 마당 위를 낮게 나」는 소리였는데, 기쿠코는, 「나는 자유로울까요?」라며 「비둘기를 바라보며 눈물 지었」던 것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만이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이미 의식의 밑에서이기는 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져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지도(慈童)에 대하여 좀더 고찰하고자 한다. 지도는 기쿠지도(菊慈童)를 생략한 말로 중국의 선동(仙童)으로 목왕(穆王)을 섬겼는데, 국화에 맺힌 이슬을 먹고 불로장수했다고 하는 사람이다.<sup>5)</sup> 이로 볼 때 지도가 기쿠코를 상징한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고, 또 신고의 회춘에 대한 바람까지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다. 기쿠코(菊子)의 기쿠(菊)는 일본어로 국화(菊)이기 때문이다. 국화가 기쿠코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몸에 두르고 입은 「오비(帶)도 하오리(羽織)도 국화」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고는 미즈타의 장례식에 갔다가 그 사례품으로 교쿠로(玉露)를 받아와,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이를 마시는 습관이 생기는데, 이는 신고와 기쿠코의 사이를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고는 교쿠로도 뜨거운 물로 마신다. 뜨거우니 우리는 방

5)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1979·12)



범이 오히려 어렵다. 기쿠코가 가장 알맞게 우린다.

이렇게 되면 교쿠로는 국화에 맺힌 이슬의 상징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 신고는 불로장수하기 위해, 아니 신고는 이미 늙었으니 젊어지기 위해 기쿠코가 준비해준 국화에 맺힌 이슬, 즉 교쿠로를 열심히 마시는 것이다. 기쿠코는 교쿠로와 함께 신고의 회춘을 위한 묘약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쿠코를 상징하는 지도도, 신고에게 회춘을 가져다 줄 교쿠로도 젊은 여자를 온천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돈사(頓死)한 미즈타로부터 손에 넣은 것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좀 전에 지도는 기쿠코를 상징한다 했는데, 이 지도는 <언니>도 상징한다. 앞에서 「분재의 받침대에 눈이 쌓이는 아침이면 수수한 단발머리의」 <언니>가 「빨간 옷을 입고 분재의 눈을 털어내고 있는」 장면을 인용했는데, 여기에서의 「단발머리는」는 「지도의 앞머리」가 「단발머리」인 것과 일치한다는 데에서도 지도가 <언니>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6)</sup> 따라서 지도와 <언니>와 기쿠코의 셋을 하나로 묶어 생각할 수 있고, 또 기쿠코는 <언니>의 <가타시로>로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된다.

지금까지 신고가 소년시절에 <언니>를 동경했었는데, 며느리 기쿠코를 그녀의 <가타시로>로 하여 의식 밑에서 사랑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찰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의식 밑에서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의식하고 있지 못한다. 기쿠코는 어느 정도 의식의 위까지 올라와 신고에게 사랑의 고백처럼 들리는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에서도 알 수 있지만, 신고는 자기가 꾸 꿈을 통해서야 비로소 분명하게 의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신고는 아홉 번이라고 하는 많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들을 꾸 순서에 따라 제 1의 꿈, 제 2의 꿈 하는 식으로 열거해보면 이러하다.

제 1의 꿈: 신고는 3년 전에 죽은 다쓰미야(たつみ屋)가 「겉은 검은 칠, 안은 빨간 칠을 한 네모진」 용기에 준 메밀국수를 먹는다. 신고가 「다쓰미야의 여섯 딸 중 한 명인 듯한 아가씨에게 손을 댄다」.

제 2의 꿈: 「작년 말에 뇌일혈로 죽은」, 「거구로 비만한 아이이다(相田)가 한 되짜리 술병을 들고 신고의 집에 올라온」다.

제 3의 꿈: 신고가 마쓰시마(松島)의 「소나무 그늘에서 여자를 포옹한」다. 「신고는 62세의 현재인 채로 20대라고 하는 식이었다」. 멀어져가

6) 이와 비슷한 주장은 쓰루타 긴야도 각주 3)번의 논문에서 하고 있다.

는 모터보트에서 「여자가 한 사람 일어나 썰 새 없이 하얀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다」.

제 4의 꿈: 신고가 「신고 산, 신고 산」이라고 부는 소리를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듣는다.

제 5의 꿈: 「열대여섯 살로 낙태를 하고 성소녀(聖少女)」가 되었다고 하는 소년소녀의 긴 순애 이야기를 신고가 읽는다.

제 6의 꿈: 미국의 어떤 주에 「각 주, 각 인종의 텍수염의 특색을 한 몸에 모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미국정부는 이 남자의 텍수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제 7의 꿈: 신고가 어떤 여자의 처진 유방을 만지나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 여자는 슈이치의 친구의 여동생이었다.

제 8의 꿈: 신고가 「짧은 육군장교가 되어있어 군복차림으로 허리에 일본도를 차고, 권총을 세 자루 차고 있었다」.

제 9의 꿈: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에 「알이 두 개 나란히 있었」는데, 「하나는 타조 알로 상당히 컸」고, 또 「하나는 뱀의 알로 작았는데, 그 껍질이 조금 벌어지고 귀여운 새끼 뱀이 머리를 내밀고 움직이고 있었다」.

제 1·제 2의 꿈은 죽은 사람이 등장한 꿈으로 신고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 있고, 제 1의 꿈·제 3의 꿈·제 5의 꿈·제 7의 꿈은 남녀관계의 꿈으로, 등장한 여자가 기쿠코이나 신고는 이를 꿈에서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신고의 회춘에 대한 바람도 나타나있다. 제 3의 꿈에서 하얀 손수건을 흔든 여자는 <언니>이다. 제 1의 꿈의 「겉은 검은 칠, 안은 빨간 칠을 한 네모진」 용기와, 제 2의 꿈의 「한 되짜리 술병」은 여자의 성기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고 있다. 여자는 기쿠코이고 남자는 신고이다. 제 4의 꿈은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신고가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언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듣는 꿈이다. 신고가 환갑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니>를 동경하고 있음이 나타나있다. 제 6의 꿈과 제 8의 꿈은 신고의 회춘에 대한 바람이 나타나있는 꿈이다. 수염은 남자의 매력이고 무기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한다. 제 9의 꿈의 새끼 뱀은 신고와 기쿠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상징한다. 기쿠코가 집에 있는 구렁이를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이 구렁이는 신고 집의 주인(主: 우리말로는 <업>)이라고 야스코가 말하는데, 진짜 주인은 신고이니 이 구렁이는 신고를 상징한다. (『산의 소리(山の音)』에 있어서의 꿈은 물론 「『山の音』における夢」<sup>7)</sup>에 상술되어 있

음)

이들 꿈에서 신고가 관계를 가진 여자들이 정말 기쿠코냐 하는 문제는 『산의 소리』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여자들은 모두 정체가 불명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 7의 꿈을 끝 뒤 신고가 「근년에 자기가 꿈 음란한 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명쾌하게 풀린다. 그 장면은 어떠한 논리적인 설명보다 설득력이 있어 부인할 수 없는 해답이 되므로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한다.

「앗」하고 신고는 번개처럼 깨달았다.

꿈속의 아가씨는 기쿠코의 화신이 아니었던가. 꿈에서도 과연 도덕이 작용하여 기쿠코대신 슈이치 친구의 여동생 모습을 빌은 것이 아니었던가. 게다가 그 불륜을 감추려고, 가책을 숨기려고 기쿠코대신의 여동생을 그 이하의 시시한 여자로 바꾼 것이 아닌가.

만약 신고의 욕망이 원대로 허용되고 신고의 인생이 뜻대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신고는 처녀인 기쿠코를, 다시 말해서 슈이치와 결혼하기 전의 기쿠코를 사랑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 본심이 억눌리고 비틀려 꿈에 초라하게 나타났다. 신고는 꿈에서도 그것을 자신에게 감추고 자신을 속이려고 한 것인가.

기쿠코 앞에 혼담이 있었던 아가씨를 빙자하여, 게다가 그 아가씨의 모습도 막연하게 한 것은 여자가 기쿠코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또 나중에 생각해보니 꿈속의 상대가 흐려지고 꿈의 줄거리도 흐려져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유방을 만지는 손의 기분 좋은 감촉도 없었던 것은 께 때에 이미 교활한 것이 기민하게 작용하여 꿈을 지워버린 것인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

신고와 기쿠코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부모자식이니 남자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산의 소리』의 세계는 이들의 사이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놓고 말았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남자와 여자 사이가 된다는 것은 불륜 중의 불륜이요 패륜 중의 패륜이다. 그러니만큼 인간사회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가 되며 이런 사실에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악취에 코를 막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독자들은 『산의 소리』의 세계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보고 아름

7) 임중석 「『山の音』における夢」(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인문과학 연구 제4호』, 1998·12 소수), p69~89

다음까지 느낀다. 왜인가. 작가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의식의 밑으로 잠수시켜 꽃을 피워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 위의 신고와 의식 밑의 신고로 설정하여, 신고로 하여금 의식 위에서는 다정한 시아버지이게 하고 의식 밑에서는 정열적으로 여자를 사랑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기쿠코는 이러한 신고에게 감응(感応)하여 그를 따라 의식의 위와 아래를 넘나들며 사랑을 엮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물주는 의식의 밑바닥 깊숙이에 숨어있는 것까지 책임질 수 없도록 인간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시아버지 신고가 며느리 기쿠코를 여자로 보게 된 것은 그녀에게서 <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를 <언니>의 <가타시로>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모럴리스트인 시아버지로서의 신고는 <가타시로>라고 하는 것 하나로 며느리 기쿠코를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식의 밑으로 깊숙이 잠수시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에서 한 송이의 아름다운 붉은 장미로 피어나게 했던 것이다.

## 결론

집필기간이 거의 겹쳐진 『종이학(千羽鶴)』과 『산의 소리(山の音)』는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대표작이다. 두 작품 다 불륜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종이학』의 세계는 오타부인이라고 하는 한 미망인이 지금은 죽어 이 세상에 없는 옛 연인의 그 아들과 정교를 하는가 하면,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연인의 아들이 그녀의 딸과 또 정교를 한다고 하는 이중의 근친상간적 정교로 얼룩진 세계이다. 대중소설가가 썼더라면 독자들로 하여금 구토를 자아내게 할 만큼 저질스러운 삼류 통속소설로 전락해버렸을 불륜의 소재에 의해 성립된 작품이다. 그럼에도 『종이학』의 세계를 접한 독자들은 구토는커녕 오히려 아름다움까지 느낀다 하니 여기에 가와바타의 문학적 역량이 있는 것이다. 작가 가와바타는 이 작품에 <마계(魔界)>와 <가타시로(形代)>라고 하는 두 모티브를 기묘하게 어울리도록 기능시켜 불륜이라고 하는 추한 소재까지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낸 것이다.

「여자의 최고 명품」으로서의 오타부인은 사랑의 귀재였기에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또 그러기에 그녀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 사랑의 대상이 사라졌으므로 그녀는 그 사랑의 대상인 남편

의 대신(가타시로)이라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얻은 것이 기쿠지의 아버지였고, 그가 세상을 뜨자 그녀가 다시 찾은 <가타시로>가 그의 아들 기쿠지였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뜨자 딸 후미코가 어머니의 <가타시로>로서 기쿠지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결국 『종이학』의 세계는 한 여인이 연인의 아들과 맺어지고, 또 그녀의 딸과 그 연인의 아들이 맺어진다고 하는 이중의 근친상간적 정교를 하는 세계이나, 이 추한 세계는 <가타시로>라고 하는 모티브도 기능하여 아름다움으로까지 승화된 세계인 것이다.

『산의 소리』의 세계는 신고라고 하는 62세의 노인이 늙음에 대한 현실 인식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낌과 동시에 회춘하고자 하는 바람을 안고 진행되어가는 세계이다. 전쟁 중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 부쩍 늙어버린 그에게 시집간 딸은 결혼에 실패하여 돌아와 있고, 아들은 결혼하여 2년도 안되는데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 안정되지 못한 가정으로 답답함만 더해간다. 그러한 그에게 며느리 기쿠코는 그가 소년시절에 동경했던 <언니>의 <가타시로>가 되어 우울하기만한 마음의 창이 되어준다.

동경했던 여자의 <가타시로>란 며느리가 아니라 여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델리스트인 신고의 정신은 이를 수용할 수가 없어 의식 밑 깊숙이 잠수시켜 거기에서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것이다. 의식 위에서는 사이가 좋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이나 의식 밑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산의 소리』의 세계는 현실회피적인 신고의 체념적 심정, 즉 신고의 늙음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인식에 의해 형성된 회춘으로의 바람과, 이를 <언니>의 <가타시로>인 기쿠코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여 전개되어가는 세계이다. 신고가 들었다고 하는 <산의 소리>는 『산의 소리』의 세계의 기저음(基底音)을 이루고, 또 의식 밑에서의 신고와 기쿠코의 사랑은 주선율을 이루어, 이 기저음과 주선율이 조화되면서 서장부터 종장까지 일관되게 진행되는 세계, 이것이 『산의 소리』의 세계인 것이다.

거의 동시에 씌어진 『종이학』과 『산의 소리』는 근친상간적 정교로 얼룩지거나 도덕과 윤리에 반한 패륜을 소재로 한 작품임에도 아름다움의 정채를 발휘하고 있는 것은, 이들 작품에 가와바타 특유의 모티브 <가타시로>를 또 다른 모티브 및 그만의 독특한 문학적 감수성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가운데 기능시켜 성립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즉 이 두 작품이 수작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타시로>의 모티브가 유효적절하게 기능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 임종석 「가와바타 야스나리 소설의 모티브 —魔界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学会, 日本文化學報 第24輯, 2005·2, p229~246
- 임종석 「『山の音』における夢」(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인문과학 연구 제4호』, 1998·12, p69~89
- 鶴田欣也 「まぼろしからうつつへー 『山の音』의 錯覺と 発見」<平川祐弘·鶴田欣也 『川端康成『山の音』研究』, 明治書院, 1985·9, p164~165
- 山田吉郎 「川端康成と『源氏物語』 —『山の音』における『形代』を中心として—」<『文芸研究』第九十一集(日本文芸研究会, 1971·3)>、p37

K C I

## 要 旨

ほぼ同時期に執筆された『千羽鶴』と『山の音』は川端康成の代表作である。二つの作品は共に不倫を素材にしているという共通点を持っている。

『千羽鶴』の世界は、太田夫人という一人の未亡人が、今は死んでこの世にいない昔の恋人の息子と情交をするかと思えば、彼女があの世界の人になった後には、その恋人の息子が彼女の娘とまた情交をするという二重の近親相姦的情交の世界である。大衆小説家が書いたとしたら、読者達に嘔吐を催させるほど下品な通俗小説に転落してしまったであろう不倫を素材にした作品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千羽鶴』の世界に接した読者達は嘔吐どころか、かえって美しさまで感じるというから、こうしたところに川端の文学的力があるのである。作者川端は、この作品に〈魔界〉と〈形代〉という二つのモチーフを奇妙に調和して機能させ、不倫という醜い素材までも美しく昇華させたのである。

『山の音』の世界は信吾という六十二歳の老人が老いに対する現実の認識により、死への恐怖を感じるとともに、回春しようとする願いを抱いて進行していく世界である。ところで信吾にとって息子の妻の菊子は、彼が少年時代に憧れていた〈姉〉の〈形代〉になり、憂鬱であるばかりの心の窓になってくれる。

憧れている女の〈形代〉とは息子の妻ではなく女を意味する。が、モラリストである信吾の精神はこれを受容することができず、意識の底深く沈め、そこで愛の花を咲かせて行くのである。意識の上では仲のよい舅と嫁であるが、意識の下では男と女になるのである。

換言すれば『山の音』の世界は現実回避的な信吾の諦念的心情、すなわち信吾の老いと死に対する深い認識により形成された回春への願いと、これを〈姉〉の〈形代〉である菊子を通して成し遂げようとして展開される世界である。信吾が聞いたという〈山の音〉は『山の音』の世界の基底音をなし、また意識の下での信吾と菊子の愛は主旋律をなして、この基底音と主旋律が調和しながら序章から終章まで揺るぎなく貫いて進行する世界、これが『山の音』の世界なのである。ほとんど同時に書かれた『千羽鶴』と『山の音』は、近親相姦的情交が描かれた作品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美しい精彩を発しているのは、これらの作品に川端特有のモチーフ〈形代〉を他のモチーフ及び彼だけの独特な文学的感受性と調和を成すなかで機能させ、成立したためである。すなわちこの二つの作品が秀作として成功した理由は〈形代〉のモチーフが有効適切に機能したという点に求め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キーワード：形代、情交、モチーフ、近親相姦、愛、不倫

|                     |
|---------------------|
| 투 고 : 2006. 8. 31   |
| 1차 심사 : 2006. 9. 9  |
| 2차 심사 : 2006. 9. 30 |

住 所 : (305-750) 大田広域市 儒城区 磐石洞 yangji-maeul apt 209-1406号

電 話 : 010-6801-9448

e-mail : j-seok@cnu.ac.kr

K C I